

3up 동산교육! 도전과 응전의 새해를 준비하며



최기형 교감 선생님

거슬러 오를 것인가? 떠밀려날 것인가?

學問如逆水行舟 不進即退 欲速即不達

(학문여역수행주 부진즉퇴 욕속즉부달) - <논어>

‘본디 학문은 흐르는 물을 거슬러 오르는 배와 같아서 나아가지 않으면 후퇴하게 되고 쉽게 얻으려 하면 도달하지 못한다.’ 한문시간에 배우는 내용입니다. 아무리 공부해도 성적이 오르지 않는다고 좌절하거나 혹은 좀 잘한다고 자만에 빠진 학생들에게 이 말을 비유적으로 자주 인용하곤 했습니다. 어디 학문뿐이겠습니까? 흥망성쇠의 세상이 모든 것이 이와 같겠지요. 그런데 ‘고교 평준화’는 퇴색해버리고 고교다양화와 특색 있는 학교 운영이 대세로 자리 잡으며, 학력관리와 진학지도 결과에 의해 학교가 서열화되는 수상한(?) 시절에 살면서 이 말이 부메랑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렇습니다. 동산, 동산인, 동산교육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물을 거슬러 배가 나아갈 수 있도록’ 힘차게

노를 저어야 합니다. 예전 방식을 답습하며 손 놓고 앉아 있으면 현상유지가 아니라 ‘퇴보’요 ‘추락’입니다. 학교라는 배에 함께 타고 있는 교직원, 학생, 학부모, 지역사회는 공동운명체 의식을 갖고 저마다 자기 위치에서 ‘동산’을 위해 ‘동산인’으로서 ‘동산교육’의 발전을 위해 주어진 역할을 다 합시다. Start! 3-UP!